

전주국제영화제 부문별 대상 3편 선정

전북도, 신나는 예술버스 힘차게 출발

한국경쟁 부문 - 신동민 감독 '당신으로부터'
 국제경쟁 부문 - 오타 타츠나리 감독 '돌을 찾아서'
 한국단편경쟁 부문 - 조한나 감독 '퀸의 뜨개질'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각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했다.
▲한국경쟁
 한국경쟁 부문 영예의 대상은 신동민 감독의 '당신으로부터'가 선정됐다.
 영화 '당신으로부터'는 의상학과 졸업반으로 졸업 전시를 앞둔 민주, 오디션을 앞둔 배우 지망생 승주, 시골마을 운전으로 향하는 동민과 혜정의 이야기 등 세 개의 챕터로 나뉘며

각기 다른 인물을 다룬다.
 배우상에는 영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이설, '전쟁이'의 김호원 배우에게 돌아갔고 왓차가 주목한 장편에는 한제이 감독의 '우리는 천국엔 갈 수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우·천·사)', 심해정 감독의 '너를 줘다'가 받았다.
 한국독립영화계의 활성화와 신진 인력 발굴을 위한 CGV상 또한 심해정 감독의 '너를 줘다'가 선정됐다.

▲국제경쟁
 국제경쟁 부문은 오타 타츠나리 감독의 '돌을 찾아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화 '돌을 찾아서'는 새로운 투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교외의 한 마을을 찾은 여행사 직원 요시카와가 마을 인근 강에서 물수제비를 뜨고 있는 도미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다룬 작품이다.
 대상은 할머니에게 배운 뜨개질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뜨개질로 이어 붙이는 이야기를 다룬 조한나 감독의 '퀸의 뜨개질'이 영예의 대상에 올랐다.
 심사위원특별상에는 손태경 감독의 '아웃'이, 감독상은 '유령극'을 연출한 김현정 감독에게 돌아갔다.
 왓차가 주목한 단편 부문에는 박종우 감독의 'EX MACHINA', 박지인 감독의 '매달리기', 김은성 감독의 '컴퓨터', 조한나 감독의 '퀸의 뜨개질', 이승현 감독의 '오늘의 영화'까지 총 5작품이 선정됐다.
▲특별 부문
 비경쟁 부문 상영작 중 아시아 영화 1편을 선정해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가 시상하는 넷팩상은 황지, 오츠카 류지 감독의 '돌로 막힌 벽'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멕시코국립시네마에서 8주동안 개봉 상영하는 '멕시코국립시네마 개봉지원상'은 박종하 감독의 '전쟁이'가 다큐멘터리상은 손구용 감독의 '밥 산책이', J 비전상은 김은성 감독의 '컴퓨터'가 받았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은 "모든 영화가 뛰어나 심사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다"며 "수상의 영예와 상관없이 영화라는 예술장르의 영역확장을 위해 애쓰는 모든 영화인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뉴시스

공연단체 83개 · 공연대상지 49개 선정 완료

전북도는 2023년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을 위해 △공연단체 83개 선정, △공연 대상지역 49개소 선정, △운영 기획사 1개소 선정을 마무리 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14개 시군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개최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북을 집중적으로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향유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4개 시군의 문화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클래식, 대중가요, 민요, 국악연주, 전통무용,

재즈댄스, 비보잉 등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유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충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문화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걸맞게 다채로운 지역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 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른 전북 소외지역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일자리 발굴에도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난 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인 2색 합창음악회'

삼일지휘자 채용 공연심사로 12일 진행

군산시립합창단의 제112회 정기연주회 '2인 2색 합창음악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립합창단 삼일지휘자 채용을 위한 공연심사로 서류·리희설 전형을 거쳐 선발된 2명의 후보자(주광영, 박지운)가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풀어놓은 색다른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1부 공연을 여는 주광영 지휘자는 경원대학교 음악대학(성악)을 졸업 후 UCLA 대학원 석사(성악, 합창지휘), UCLA 대학원 박사 학위(합창지휘)를 취득했으며 과천시립여성합창단, 송파구립합창단, (사)난과 합창단 등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지휘자로 평가 받고 있는 지휘자다.
 프로그램으로는 고전주의 시대 리듬과 아름다운 화성을 가지고 있는 J.Haydn의 'Te Deum'을 시작으로 감성과 서정적인 우리 가사들로 이루어진 한국 합창곡(봄길, 나하나 꽃피어 등)과 서양 합창곡(Alle Alle, Music down in my Soul)을 통해 청중들에게 감미로운 선율을 전달할 예정이다.
 2부 공연을 여는 박지운 지휘자는 이탈리아

프로시노네 국립음악원 '작곡, 오케스트라 지휘, 합창지휘' 등 유럽에서 동양인으로 유일무이하게 3개 전공 디플로마를 획득했다.
 그 후 로마에서 로마네스카 오페라단 삼일지휘자를 역임하고, 로마의 ARAM, AIART 국제음악아카데미 교수를 역임하는 등 국내외 작곡가 및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대구시립, 김해시립 합창단 삼일지휘자, 서울대구시립 오페라단을 지휘했다.
 프로그램은 무반주 합창곡 Christus Factus est (A.Bruckner) 등을 시작으로 3개의 우리말 꽃노래(모란꽃, 진달래꽃, 동심초)와 19세기 말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오페라 '까발레리아 투스티까나' 중에서 3개의 합창곡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에게 오페라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현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서로 다른 감성과 열정, 두 명의 지휘자를 통해 합창음악의 다양한 장르 레퍼토리를 동시에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특히 군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지휘자를 선정하는 의미 있는 공연이기도 하다"며 "새로운 시립합창단 지휘자와 함께 시민들에게 감동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주문화재단, '예술로 링크' 공모 선정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비 1억원 확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옥선)은 2023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링크(Link)'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전년도에 전국 5개 시범사업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전주 지역 5개 학교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 학교 수를 8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문화재단이 지원한 '자율지역 선정형' 사업에는 총 15개의 기관이 지원, 이 중 전주문화재단, 프라시스, 광주북구문화회집 등 총 3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예술로 링크(Link)'는 매개자와 함께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며 학생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다양한 지역의 지원들과 학교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한다. 이 과

장에서 매개자는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예술가를 연결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박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재단이 축적해 온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학교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기반이 확장함으로써 예술교육에 내재돼 있는 사회적 기능과 가치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 '금당사',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 마이산 탐사는 징수 유지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신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함에 따라 진안군 마이산에 위치한 금당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중단 방침에 따라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6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돼 무료입장이 가능해 졌다. 반면 문화재관람료는 정부 예산으

로 충당된다.
 금당사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했기 때문에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가 면제되나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마이산 탐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탐사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탐사 앞 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매표 인건비 등을 감안 일반성인 1인 3,000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